

대전 정부청사 불자회 추진



○8월30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문화재청·통계청 공무원들이 오는 11월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 창립을 결의하고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통계청 등 이달 준비모임 11월 발족 중앙부처·지자체 10월연합 성지순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관세청 등 11개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정부청사에 연합불자회가 결성될 것으로 보여 공무원들의 신생활동에 커다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청, 통계청 공무원 불자 20여명은 8월 30일 대전 둔산동 한 음식점에 모여 오는 11월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를 창립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로 창립준비위원을 선정, 불자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달말 연합불자회 창립준비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한 10월에 있을 공무원불자 합동성지순례와 전국직장직능연합대회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 창립은 대전지역 지자체 및 일반 기업 불자회의 창립 및 활성화에 기록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화재청 불자회는 문화재청이 그 어느 부처보다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개인 신생활동과 더불어 불교문화의 관리·보호 등의 성보지킴이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홍연권(34·통계청 산업동향과)씨는 "인근 지역사찰과 연계, 법사섭외와 법회장소문제를 해결해 불자회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연합불자회 창립이 대전정부청사 불자들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정보교류를 확대해 아직 불자회가 없는 대전시청 등 지자체 불자회 창립에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부청사 내 문화재청과 통계청이 지난해 불자회 창립을 준비했으나 법회장소와 법사섭외가 어려워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현재 관세청 불자회만이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 행정자치부, 행정거래위원회, 은평구청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불자회 일원들은 10월 7~8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전국 공무원불자 합동 성지순례를 갖기로 했다. 합동 성지순례를 통해 공무원불자연합회 결성을 구체화할 방침으로 공무원불자 상호간에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가속화시켜 나간다. 대전=김두식 기자 (doobi@budhopia.com)

우리 모임에선

광복회 청광스님 초청법회

대한광복진흥공사 광복회(회장 김석규)는 8월29일 원응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원응사 주지 청광스님은 연연에 대해 설법했다.

은평구청 불심회 사찰순례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8월30일 관내 미륵암으로 사찰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이 <금강경>을 설법한 이날 법회에는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해 불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성북승무소 철장사 참배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병호)는 6일 안성 철장사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이번 성지순례는 법우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6일 오전 10시 성북역 전동차사무소 운동장에서 출발한다. 011-9776-0541 박병호

석불문화원 사랑방모임

한국석불문화연구원(회장 이근후)는 6일 삼청동 가족이카데미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8월27일 다녀온 경북 칠곡 노석동 마애불상군 답사에 대한 평가와 서현씨의 강원도지역 문화재 및 석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2)760-5738 고재두

연등회 3인 최고위원 선출

민중당 연등회 고문 권노갑, 한화갑위원과 부회장 김근태의원이 8월30일 민중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들 최고위원들은 "그동안 불교계에서 보여준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며 국정과 의정활동에 노력하는 연등회 회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클릭! 새 홈페이지

■대각사(http://cafe.daum.net/daekak)-8월 31일 개설. 종로 대각사 모임.

■경북대의 인연(http://cafe.daum.net/kbu)-8월 30일 개설. 경북대학교 7기 법우들의 인연만들기.

■향불회(http://cafe.daum.net/schircle)-8월 30일 개설. 자비 실천모임 향불회의 사이버 중지.

■청년 2000(http://cafe.daum.net/youngpower2000)-8월 29일 개설. 대불원 서울지부 문화부 모임.

■구룡사 어린이회 동문 모여라!(http://cafe.daum.net/gcbs)-8월 21일 개설. 구룡사

어린이회 동문 모임방

■한국천은미륵불원의 좋은 친구들(http://cafe.daum.net/lovebulldang)-8월 21일 개설. 한국천은미륵불원 청소년반을 위한 장소.

■비밀이 머무는 곳... (http://cafe.daum.net/gorfulsda)-8월 25일 개설. 해인사 백련암 수련회 모임.

■대한불교천태종 이천장화사(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bulgyo)-8월 20일 개설. 장화사 어린이회, 학생회 회원과 선생님의 만남의 장.

■익산관음사사우회 불교학원(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wise2210)-8월 28일 개설. 불비 불교학원 회원 및 동문 친목모임.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재상 <한빛은행 외환업무팀 계장>

IMF 전후로 많은 동료들이 직장을 떠났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괴로워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러 그들과 함께 했던 고운 시간들을 간직하려 해도 손가락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부처님께서는 늘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다. 사상은 늘 있는 그대로의 한 예이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식에서 보면 모든 것은 진지한 삶의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늘 같은 생각, 같은 느낌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늘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늘 있는 그대로를 쉽게 볼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라는 아상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바르게 사는 법은 바른

없으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따라서 당당한 주관이 없게 된다. 내 일이 아니며 내 직장이 아니며,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생활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한다는 것이며,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 자체를 진정으로 귀히 여김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불경을 읽지만 말고 그대로 생활에 녹여 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를 본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라"

바르게 사는 법(팔정도)이 어렵지만 꽤나 많이 보인다. 우직함이 아니라 감히 실천할 수 있는 의의이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요점은 불법을 배워 알았으면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직장생활 도중 틈틈이 경전을 읽는다. 처음에는 한자도 많고 생소한 내용들이라 읽을 엄두를 내지도 못했지만 한권 한권 읽어 나가다 보니 그 오묘조밀한 맛에 환희심이 일어났다. 기성불은 어떤 것이든 조금은 몸에 맞지 않는 곳이 있어 마련인데, 불경을 읽어서 익혀 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맞춤형 지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늘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신다. 불경을 읽다보면 우리가 이미 법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법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은 어떠한 곳에서도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그저 어두운 길을 걸어가듯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가며 사는 것이다. 어떤 무엇도 명확한 것이

다. 다는 것은 불법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이 없는 불가능하다. 우리들 중에는 역경의 전생부터 불법을 배워 그대로 생활하여 깨달음을 퍼신 부처님과 같은 불법을 배워 알았으면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수행자가 더 많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정진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무성계 정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무량세에 정진한 것에 비하면 이생에서의 정진은 가벼우리라. 나처럼 이제 불법의 맛을 보기 시작한 이들도 그 환희심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량을 해대는데 무량세에 불법의 맛을 음미하셨는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생활한 것이 그대로이며, 앞으로도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정진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 전에 기도드린다.

탐방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 회원들은 지난 6월5-6일 김사원 불자회와 함께 금신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자비사상 실천하는 참일꾼

창립 1돌 맞아 법회

사내계시판 통해 심심키워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회장 이영희)가 첫 돌을 맞아 1일 광사에서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을 비롯 8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돌법회를 봉행했다.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는 이영희씨와 장인준씨와 감사원 불자회 성지순례에 동참한 것이 인연이 돼 지난해 8월 7명을 발기인으로 창립했다. 복지부 신행회는 창립 이후 가정법회, 성지순례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지

금은 40명에 이르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신행회의 운영방식은 독특하다. 정기법회 대신 사내계시판에 계시판을 개설,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키우고 있다. 신행회 계시판에는 법이나 기타 행사를 알리는 공지사항은 물론 기도·수행 방법, 신행체질 법구 등이 올려진다. 신행회에는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계시판을 통해 자신이 불자임을 밝히는 사람이 생겨날만큼 온라인상의 활동이 450명에 이르는 복지부 공무원들과 신행회 회원들이 이

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법회 역시 다른 직장불자회에선 보기 힘든 불교신행회의 자랑이다. 가까운 회원들 가족들이 소규모로 모여 봉행하는 가정법회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부담없는 모임으로 신행이나 불교공부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 법담도 나눈다.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 두터워 진다는 것. 신행회 강인준 총무는 "신행회 활동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참공무원이 되는데 걸림이 없어 되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복지현장의 어려움을 파악, 최선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신행회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능력"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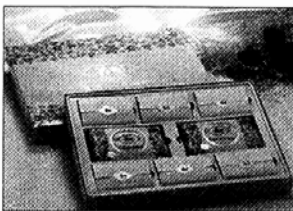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식품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한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원(배꼽)에 착용하면 방광약용식물의 성분인 신권원이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형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태중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매달되는 증상에 (○) 꼭 실시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약이 있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덜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번민이 심한 편이다
- 18 당노나 감당능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거지 이상 의심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